

[주제 발표]

대학생 환경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반성과 평가

발표자: 이용준(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학생)
토론자: 민일정(호남대학교 법학과 학생)
안재형(상지대학교 자원공학과 학생)

대학생 환경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한 반성과 평가

이용준(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학생)

지난 여름, 수십년만에 찾아온 무더위 속에 진행되었던 대학생 환경자원봉사단 활동에는 천여명의 학우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중의 한명으로 이 자리에서 그 행사의 실제 모습을 밝혀 보이고 아울러 성과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59개의 팀으로 나뉜 학우들이 전국 각지의 산과 바다를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분산되어 활동하였기에 이에 따른 지역적 차이도 차이려니와 이번 행사에 자원했다는 공통점밖에 없는 학생들도 천태만상의 마음가짐으로 임했기에 실제 활동 상황 또한 매우 다양했을 것입니다. 이 학우들을 대변해 보려는 시도로 저는 여덟명의 팀장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여덟명 중 한사람인 저는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2학년생입니다. 저희 과내에는 산사랑회라는 소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올 여름방학동안 3박4일가량의 산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내 게시판에서 대학생 환경 자원봉사단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자원봉사라는 좋은 명분 아래 설악산에서 몇일 머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홉명이 단체로 참가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명분 아래서 산과 바다로 가서 타학교 학생들을 사귀고 보람있는 일도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겠구나!”하는 것은 가장 전형적인 참가동기로 생각됩니다. 제가 접한 여덟명의 팀장 중 2명만이 환경자원봉사 자체에 관심을 둔 학생들이었고 그팀의 팀원들까지도 그러한 목적하에 참여한 팀은 한팀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최측인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

진협의회(이하 환추협)의 입장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환추협의 의도는 공히 “환경운동에의 참여가 비교적 부진하다고 보여지는 대학생들을 스스로 환경운동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낸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번 경험에 의하면 이 말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에의 참여가 비교적 부진하다고 느껴지는 대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그들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산과 바다로 모일 기회를 제공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스스로 환경운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도록 한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는 앞으로 계속될 결과보고서에서 전개됩니다. 환추협의 이러한 목적은 투자된 비용과 인력을 감안할 때 상당한 수준 달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치 못했던 저는 난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팀원들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출발시간과 출발장소를 정하고 취사기구 및 기타 준비물을 분담하는 일 등이 주최측의 임의로 선정된 팀장에게 맡겨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팀장과 팀원들을 난감하게 했던 것은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활동기간전 한번 있었던 예비모임에서 주최측에 구체적인 현지활동내용을 알려주기를 요구했고 담당자는 현지에 보낸 환경에 대한 홍보물로 홍보활동을 하고 기타활동은 협조의뢰된 현지 기관과의 협의하에 팀 스스로의 판단으로 해나갈 것이니 현지에 가 보아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동 지역 야영장에 도착한 우리를 먼저팀의 팀장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는, 첫날 잘못된 지역에 설치된 텐트를 가져오느라 저녁 늦게야 설치완료한 이야기, 등산로와 떨어져 있는 야영장에 텐트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국립공원내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불가했던 이야기, 그에 따라 매번 버스를 타고 활동지역으로 왕복해야 하는데 관리공단은 버스

회사에 교통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고 버스기사는 연락 못 받았다고 한다는 이야기등을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언론기관, 행정기관 등 현지 관련기관의 협조를 구했다던 환추협 담당자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열 일곱 곳이 활동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곳곳의 활동현장 확보와 관련기관협조를 실제로 담당하신 분이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담당자' 한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때 알지 못했습니다. 설악산지역 관리사무소의 우리에게 대한 태도는 그래도 적극적인 편이었다는 것. 망상해수욕장에서 활동한 팀들 중 한팀은 팀원들 대부분이 충북대 환경공학과 소속으로 사전에 홍보활동위주의 구체적 계획을 작성하여 현지에 임했으나 퇴약별이 내리쬐는 해변에 설치된 텐트에서 생활해야 했고 현지기관의 무관심으로 전기시설도 직접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하는지 행사객들에게 알리려 했으나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고 메가폰같은 물자도 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비모임에서 주최측이 지급을 약속했던 브이.티.알이 지급되지 않아서 계획했던 비디오상영은 불가했고, 비가 심하게 올 때는 비를 제대로 피할 여건마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팀은 처음 계획했던 홍보활동 위주의 활동을 포기하고 해변정화활동을 위주로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설악산에 있던 우리 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보활동위주의 활동을 하기에는 홍보자료의 양이 너무 적었을 뿐더러 홍보활동의 대상이 될 행사객들과 우리는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면에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참가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이 결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팀은 국립공원 정화를 위주로 활동해 나가되 대상지역은 설악동지역에서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모든 등산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팀원 모두가 설악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지원동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산 하부보다는 등산로가 관리의

취약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 나온 쓰레기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등산객들에게 홍보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대자보를 쓸 도구나 그것을 세워둘만한 기구를 직접 만드는 수 밖에 없었기에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우선 야영장에 있는 수백개의 텐트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호별로 방문하여 폐유재생비누를 나누어 주며 그 의의를 설명하려 했고 가정생활에서의 환경보호활동에 관한 팜플렛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장 북적대는 아침 취사시간에 '대학생 환경 자원봉사단'이라고 씌인 모자와 티를 입고 야영장을 개끗이 치웠습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의 자그마한 호응과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버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리라는 생각.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었습니다. 등산로에서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기암과 푸른 숲이 어울어진 등산로와 계곡 사이사이에 흩어져 있는 폐물을 수거할 때 많은 등산객들이 수고한다는 말을 건넸고 이들이 이 계곡과 산을 더럽히는 행동을 자제하게 될 것이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천여명 학우들이 보람을 찾은 가장 큰 부분이었고 우리의 사소한 행위가 환경오염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체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팀이 해변과 야영장, 계곡과 취사지역에서 정화활동 위주의 활동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의미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상이 제 결과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번 행사의 문제점과 성과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보충하여 분명히 해 보겠습니다. 이 행사의 근본적인 형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환추협의 저희 학생들에 대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환추협은 저희에게 환경자원봉사단의 이름하에 모이도록하여 환경보호운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추협은 우리들을 환경운동주체로 보다는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직접해보면 더욱 절실히 느끼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 실질적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교육과 도구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혼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생 국토청결 자원봉사단'이라는 이름하에 우리의 똑같은 활동이 이루어 졌다면 앞에 말한 충북대 환경공학과 학생들의 실망은 없었을 것이고 환추협의 지원수준에도 적절했을 것입니다. 대학생은 동기가 순수할 수 있다는 점과 그들이 차지하는 사회적 지위의 성격에서 환경운동의 강한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가자들에 대한 환경 교육이 선행되고 대기 및 수질 오염원 감시적발 활동, 환경 오염 기업 상품 불매운동, 가정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대 국민 홍보 활동 등등. 이러한 것들이 배제된 환경자원봉사단 활동, 이것은 저와 같은 아마추어의 눈으로 볼 때에도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번 행사의 활동 대상지역이 상기한 활동이 가능한 지역, 즉 공단이라든가 주택지, 대규모 캠페인이 가능한 장소, 하천변 등에서 이루어 졌다면 이번과 같은 대규모의 아마추어적 환경자원봉사단이 동원될 수는 없었으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저는 환추협의 대학생 환경자원봉사단안의 의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식의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보다 온전한 모습의 환경자원봉사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하고 또한 이러한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자원봉사단의 의미를 전제하고 이번 환경자원봉사단활동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참가자들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 교육은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홍보물자를 비롯한 장비 및 자금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

요합니다. 대학생의 활동에 대한 행정기관 및 언론의 태도가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대학생환경운동의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번 행사와 관련된 지원부족의 문제점을 환추협에 돌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추협은, 대학생환경자원봉사단활동의 수혜자 즉, 우리가 사는 사회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2차 대학생환경자원봉사단 참가 학우들의 대변인 역할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그들의 생각을 담아내지 못한 수 많은 학우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끝으로 제 역할을 제대로 마치려면 아래의 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환추협의 담당자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제발표 I]에 대한 토론

민일정(호남대학교 법학과 학생)

대학생 환경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수 많은 대학생들 중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주최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방학때 지리산 지역에서 대학생 환경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 호남대학교 법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민 일정입니다. 여러분들과 토론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며,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을 만나 영광입니다.

<참가 동기>

‘환경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여 생소한 느낌을 받아 이런 행사도 있구나 하고 생각되었지만 망설임없이 봉사단 모집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커다란 기대감이 있었다기 보다는 그저 반신반의 한 기분으로 몇몇 학우들의 뜻을 모아 희망 활동 지역을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와중에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구나!”하는 조그만 희망 또한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주최측에서 연락이 오고 예비모임을 거친후에 차츰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저 역시 여행을 무척 좋아하고, 안면이 없는 타 대학 학우들과 만남을 통해 인연을 만들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친구들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몇차례 봉사활동을 하였으나 이번처럼 여러가지를 겸하면서 활동한 기억은 없어서인지 특히나 호기심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환경 자원봉사 활동에 참석하게 되어서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활동의 실체>

봉사 활동 기간이 가까와 오면서 우리 팀의 구성원의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신청하였던 학우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한명씩 활동에 불참하겠다는 뜻의 연락을 접할 때마다 자신이 한 약속 - 개인적으로는 약속이란 자신의 인격을 투영한다고 생각한다 - 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학우들을 보면서 약간 팀장으로서 의기소침해졌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얼마든지 훌륭하게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결국 지리산 4차 팀원은 소수의 구성원으로서 채워지게 되었다.

주최측의 발신문에 팀 자체적으로 활동계획을 세워 활동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스스로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않은 상태에서 조금을 걱정이 되었다. 지리산에 도착하여 관리자의 의견과 팀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일정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지리산 환경 봉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앞선 봉사활동에 참가한 1 ~ 3차 팀들의 봉사활동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지역 관리소 관계자가 말한 곳을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 곳을 우리팀 역시 똑같이 활동한다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보고, 우리팀은 등산로를 따라 가면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화엄사 계곡을 시작하여 노고단, 피아골의 등산로를 따라 가면서 홍보활동과 정화활동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노고

단 산장까지 가면서 하나 둘 주워든 쓰레기는 어느덧 우리가 준비해간 비닐 봉지를 가득 채우고 말았으며 비우고 줍고하는 과정을 여러번 반복하면서 팀원들 스스로의 각자 생각들은 결국 노고단 산장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을 줄 몰랐다는 것과 산을 사랑한다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 산을 사랑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되가지고 가야할 쓰레기를 산에 버리고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느낌은 노고단 산장에서 피아골 계곡으로 내려오면서 보다 더 서로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였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팀의 봉사활동의 주안점은 나 스스로 하나의 쓰레기를 줍기보다는 한 사람의 산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점을 팀원들에게 말했더니 나의 의견을 받아줘 환경 정화 활동도 열심히 수행하였지만, 특히나 관광객들과 등산객들의 홍보활동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보다 많은 사람의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하였으며, 그 점에서는 지금도 훌륭한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와 평가>

여러분 모두 이부분에 있어서 각각 의견이 다양하리라고 생각하며, 다소 유사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 역시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동안 도출된 문제점 몇가지를 간단하게나마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봉사기간과 인원에 관한 것입니다.

첫날과 마지막날을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준비와 마무리 사항으로 보내기 때문에 활동기간은 실질적으로 이틀이나 사흘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쉬움이 남는 기간이라고 할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본다. 인원문제에 있어서는 이번 봉사활동하는 팀중에서 20명의 전원이 참석하여 활동을 한 팀은 거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팀들이 절반정도이거나 그 이하의 인원수로 활동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참석하겠다고 약속하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이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도 주최측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홍보물자 및 장비부족, 장비의 효율적인 지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활동지역이 산과 해수욕장등으로 구분되어 실시 되었는데 활동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않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지급하여 어떤 물품은 거의 사용이 없었으며 또 어떤 물품은 부족하였다. 우리팀의 활동지역을 예를 들면 마대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아 1차, 2차, 3차에 사용하던 마대가 남아 그대로 있었고, 우리팀에 배당된 분량의 마대가 남아 거의 100여장의 마대가 남아서 그곳의 관리소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마대의 양도 실질적으로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반면, 비닐봉지는 수요량이 많아 금방 바닥을 드러냈다. 비닐봉지의 경우 등산객에게 배포하고 관광객들이 선호하여 활동기간에 많은 수요가 필요하였지만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은 부분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마대보다 비닐봉지를 더 많이 제공하였으면 했다고 본다. 주체측에서 한차원 더 높은 단계의 장비 문제 고려가 필요 하겠습니다.

셋째, 숙박과 식사문제이다.

텐트의 설계가 잘 이루어졌지만 우천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식사는 각자 지역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긴밀한 연락에도 불구하고 원활하지가 못한것 같다. 특히 국립공원지역에서는 물가가 높아 자금문제가 대두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대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원교육문제입니다.

제 2차 행사이고 59개팀 천여명의 인원을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어려움이 다양하게 존재하리라고 사료되지만 대학생 봉사활동을 계획한 만큼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을 모집하여 팀을 구성하고 희망지역에 파견하여 물품을 제공하면 된다는 형식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전모임을 통하여 참가대학생들이 원만하게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간절하게 요청되며,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모든 사람을 교육할 수 없다면 팀장 1인이라도 다양한 교육이 선행했으면 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계획서나 지침서 그리고 참고할 만한 세부적 활동자료등의 제공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유익하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평 가>

제 2차 대학생 환경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참가자들에게 교훈을 남겼을 것이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커다란 관심이 없었던 참가자들도 직접활동을 하고 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며, 또한 이에 부수된 파급효과도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 봉사활동 후 여행을 하면서 주변을 한번더 살펴보고 행동에 있어서도 더욱 조심하게 된 것은 이번 활동을 통한 소기의 목적 달성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녀온 친구들을 보더라도 이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2차 활동을 통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꾸준하게 발전하기를 희망합니

다. 내년에도 이러한 행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시간이 허락한다면 참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환경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홍보부 황 연석 부장님 이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제발표 I]에 대한 토론

안재형(상지대학교 자원공학과 학생)

이번 대학생 환경자원 봉사에 참여한 59개팀 중 저는 낙산 2차 팀장을 맡았던 상지 대학교 자원공학과 4학년생 입니다.

우선,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하게된 계기는 1학기가 끝나갈 무렵 친구와 함께 교내 게시판을 보던 중 '대학생 환경자원 봉사단원'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마침, 마지막 대학여름방학을 계획하던 차에 바다에서 타학교학생들도 사귀고, 함께 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보고 싶었으며, 또 한편 졸업후에 이와같은 기회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에 이번, 주어진 기회에 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가통보서에는 팀장이란 무거운 짐이 함께 실려왔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우선은 막막하였으나, 주어진 임무이므로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으로 예비모임에 참가하여, 간단한 행동지침과 현지에서 팀장의 역할등을 지시 받은 후 팀원들에게는 전화로 만날 장소와 시간, 그리고 취사기구와 기타준비물들 배분해 주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했을 때 사정은 예비모임에서 들었던 것과는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관리사무소에서 조차 우리가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과 어떤 단체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며, 샤워장 사용문제와 텐트의 위치도 생각했던 것보다 원거리에 있어서 찾는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우리 17명의 팀원들은 우선 앞으로 이곳에서 해 나가야 할 봉사활동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정화와 환경홍보활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화는 백사장과 주위도로, 그리고 텐트촌, 식수대를 중점으로 청소했으며, 샤워장에는 재생 비누를 비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정했던 VTR 상영은 현지 사정상 할 수가 없었고, 계획했던 피서객들과의 환경에 관한 토론회는 환경홍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으로 팀원들간에 이번활동에 대해 느낀 점이나 문제점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활동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도착한 다음날 아침에 비가 무척 쏟아져 계획했던 백사장 정화 활동을 포기해야 했으나, 팀원들의 강력한 의지로 비를 맞으면서 정화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번 활동에 있어서 저와 팀원들간에 느낀 몇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팀장의 중요성

팀장은 타지역 타대학에서 모인 학우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팀의 융합과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팀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였으면 합니다.

2. 행동 계획의 수립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없으니 각 차수간의 활동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틀에 짜인 계획보다는 자율성을 주면서 각 봉사활동 지역에 맞는 행동 계획이 수립 되었으면 합니다.

3. 봉사 단원의 사전교육

홍보 활동을 하는데 있어 단지 책자 배포에만 그칠 수 밖에 없었고 현장에서 몇 권의 책을 돌려보고 피서객들과 토론회를 개최 한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모든 단원들을 모아놓고 일일이 교육한다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으므로 봉사 활동과 환경에 관한 소책자를 만들어 출발전에 모든 단원들에게 배포하여 숙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팀의 구성시 인원 배치에 관한 문제

각자 희망 지역으로의 인원 배치에 의한 편중에 의하여 봉사 지역에 따라 활동 인원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장소에 맞게 남녀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5. 우리의 무책임감

어떤 팀은 예정 인원엔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 와서 활동이 지지부진 하였다고 하고, 한 대학에서 신청한 인원 중 상당수가 못 간다고 하여 인원을 재 배치하느라 힘이 들었다고 하며, 저희 팀도 예정 인원 8명이 불참하였습니다. 각자가 아무 생각없이 신청하였거나, 자기 시간 일정에 맞게 신청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들 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도 있겠으나 일부는 막상 일에 닥쳐 자기만의 편안함에 빠져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만 생각하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행동을 떨쳐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 보다는 젊은이들이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공유하고, 동거동락하면서 각자 스스로 절제와 인내를 통해 어떤 틀에 짜인 프로그램보다는 스스로 열심히 쓰레기를 주우며 흘린 땀과 환경에 대해 배우고 깨치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최측의 목적인 “환경 운동에의 참여가 부진하다고 느껴지는 대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의식을 심어 주기위해 그들이 좋아하는 산과 바다로 모일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환경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의식을 심어 주도록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리라 봅니다.

이들에게 환경 문제가 관련된 현장에서 감시활동을 하거나 오염배출 기업의 상품 불매운동 등의 적극적인 방법이나, 산이나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고 홍보 활동을 하는 등의 소극적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전자의 경우는 환경자원 봉사란 이름아래 할 수 있는 성격을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전자의 방법이든 후자의 방법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환경 운동에 참여시켜 직접 환경에 대한 문제를 체험시키므로써 환경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큰 성과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어떤 식으로든 환경에 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환경 운동의 주체나 대상이냐의 문제보다는 이들에게 환경 체험을 시켜 환경 보호는 내가 일으키는 사소한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 토론회를 준비하신 환추협 담당자와 환경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